

속 기록

- 회 의 명 : 제 275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0. 4. 24(금) 15:00 ~ 17:17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나종영 위 원
 이승정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최창주 위 원

1. 성 원 보 고

○박종관 위원장

-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강력한 거리두기의 입장에서 2월과 3월 대면회의를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대체해서 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주부터 생활 방역 체계로 접어들면서 정말 오랜만에 위원님들과 함께 모여서 4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 4월 1일 신임 예술극장장과 아르코미술관장을 민간에서 위촉해서 신규 임명을 했고요. 오늘 회의에 참석한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조미숙 공정심의부장, 이종국 공연기반부장을 포함해서 9개 부서장 인선이 있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정순민 아르코예술극장장과 임근혜 아르코미술관장께서 자리에 와 계시는데, 인사 부탁 드립니다.

○정순민 예술극장장

- 안녕하십니까, 정순민입니다.

○임근혜 미술관장

- 아르코미술관장인 임근혜 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극장장님, 미술관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정순민 예술극장장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미션 중점 체계부터 운영사업이 재구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겹치면서 사실 그것이 조금 더 시급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서 하루하루 대관 단체나 관련 협회들과 어떻게 공동으로, 그리고 저희 극장이 공론화의 장이 돼서 협력하면서 진행할 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본부장님, 부장님들께 저희 극장에서 많은 협조와 예산에 대한 지원체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근혜 미술관장

- 미술관은 지금 베니스 귀국전이 코로나 때문에 개막을 준비해 놓고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술관의 업무들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회의 비전과 미술관의 고유 역할을 양대 축으로 해서 운영의 기본 틀을 다시 재편하려고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고요. 극장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아르코극장장, 미술관장 민간전문가 임용문제는 아르코혁신안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고 정말 파격적으로 모든 권한을 민간전문 심의위원회에 맡겨서 2명의 전문가를 신규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정의롭고 투명했기 때문에 결과까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2년 이후 민간전문가를 다르게 모셨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목표체계가 분명하고 결과가 성과로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특히 아르코예술극장이 내년에 4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미술관 역시 그렇고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양상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중요한 기관들이라서 잘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저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잘 돕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2개의 의결안건과 5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오늘 위원 10인 중에서 김혁수 위원님이 불참하시고요. 이승정 위원님은 오실 것 같은데 현재는 8인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3페이지입니다.

전차(前次) 위원회 관련 내용을 보시면 서면으로 진행해서 269차부터 274차까지 총 상정된 안건이 20건인데요. 1건을 제외한 19건이 원안 의결되었고 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차(前次) 회의를 보고 받으셨는데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은 2020년 제2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 보고에 대한 의결입니다.
이 건은 조미숙 공정심의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공정심의부장

- 제2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0월에 선정위원회 위촉과 제1차 심의위원 후보단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후보단을 모집하고 지난 4월 21일 서면회의로 106명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서면회의로 했던 이유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에 따라 서면회의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위원으로는 12인이 참석해 주셨고 8개 부처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여 저희가 전체 106명에 대해서 후보를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2명 중에 156명은 제 3차 회의 때 재 논의하는 것으로 같음하였습니다.
주요 재검토 내용은 전문성과 활동 경력이 부족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부분으로 활동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문성에 대한 논의나 전문분야 경력의 적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 특이사항은 8쪽의 표로 같음하겠습니다.
심의위원 2차 선정위원회 인원으로는 172명이고 1차의 66명과 2차 106명을 더해서 172명이고요. 세부 장르에 있어서는 1인이 1~2개의 장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280건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선정위원회 회의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회원 상태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심의위원 후보단을 대상으로 심의위원의 역할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별도 안내를 드리고 제3차 선정위원회에서 2차 보류인원에 대해서는 7월에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심의위원 후보단 확정 내역은 붙임자료 1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810호 2020년 제2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셨는데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가 후보단 선정위원회 위원님이셔서 특별한 말씀은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희경 위원

- 8쪽에 나와 있는 재검토 특이사항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조미숙 공정심의부장

-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토론을 하실 게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다음 7월 3차 회의 때 재검토 대상인 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선정위원회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릴 때 제가 여쭙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이번에 신청이 262명인데 선정되신 분은 106명이고 미선정되거나 재검토를 하셔야 할 분이 156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배경이나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가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차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선정위원회 때는 모든 위원님들이 위원 후보단으로 넣어도 될 것 같다는 분들을 넣었고요. 만약 1인이라도 “이 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전부 보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심의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을 텐데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 3차 회의를 7월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저도 약간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궁금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1인이라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뒤로 빼 놓았다는 것이네요.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유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토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지를 않으셔서 논의가 필요한 분들은 유보로 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렇게 되면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공지가 나가게 되나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온라인상으로 로그인하여 확인하라고 메일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후보단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7월 선정위원회를 할 때 재검토해서 선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7월 대면회의 때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그때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예.

○강윤주 위원

- 혹시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의 연령대에 변화가 있나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9페이지를 보시면 30, 40대가 45.2%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검토 대상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10년 미만인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미만이신 분들도 3차 선정위원회 때 10년 미만이지만 넣을 분들인지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윤주 위원

- 예. 1차에 비해서 2차의 연령대가 젊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차이는 없습니까?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제 기억으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10년 미만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강윤주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예술위원회 선정 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젊은 지원자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심사위원 풀도 뭔가 떠들썩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조금 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1차 때는 공고가 나갈 때 10년 이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기타로 해서 “10년 미만이라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희경 위원

- 실제로 음악 장르 같은 경우 20~30대가 많기는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실제로 45.2%라고 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마 수치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회의 자료로 못 올렸을 뿐이지, 계열별 비교를 하면 분명 늘어났을 것입니다. 다만, 경력 10년을 명시하면 30대는 10년의 경력을 채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7월 대면회의를 통해서 “이 정도면 10년의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 후보단 선정위원회에서 “자격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여 그런 분들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강윤주 위원

- 나중에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예술위원회가 젊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심사위원 풀의 젊어진 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공고문이 달라서 동일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우리 위원회가 심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손쉽게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훨씬 더 젊어졌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일을 7월 대면회의를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완하여 결정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대부분 심의위원 선정 후보단 회의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오늘 올라온 안은 의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2020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자료 18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20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정시공모사업과 별도공모사업을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추진계획에 의한 의결을 본 이후로 별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지난 2월 19일부터 3주에 걸쳐서 접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총 21건의 접수를 받았고 그 중에서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오페라지원사업은 2개년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연도에 대본 시놉시스와 작곡가, 작가의 역량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가다듬은 다음에 이듬해에 최종 쇼케이스를 통해서 신작을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PT/인터뷰 심사를 거쳐서 총 5건을 선정해서 1건 당 2,000만 원씩 2억 원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2,000만 원은 작곡가 1,000만 원, 극작가 1,000만 원씩 격려금 차원으로 주는 명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1건 중에서 결격이 3건 있었고 18건 중에 6건의 후보를 선정했고 최종 인터뷰를 거쳐서 3건을 탈락시키고 5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구성 방식으로는 적격자 지정(4배수)으로 사무처 2배수, 해당 각 장르위원님 2배수로 해서 4배수 방식으로 후보를 정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 내역은 1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별, 지역, 연령별 안배를 통해서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생년이 안 나오기는 했는데 4번과 5번 심사위원은 40대고, 1번, 2번, 3번은 50대입니다.

지원결정현황은 5건에 대해서 1억 원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의 심의기준에 따라서 역량 평가 그리고 발전가능성, 작품의 예술적 발전가능성 등을 통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결정내역은 2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811호 2020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담당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선정된 극작가, 작곡가 분들을 보니까 2년차 지원이라서 올해 쇼케이스를 하게 되는 팀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선정이 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봤고 그 점에 대해서 창작부서에서도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창작오페라가 좋은 대본 등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이제야 조금씩 좋은 작품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요. “연이어서 2번 정도 선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2년, 3년 연이어서 하는 것에 대해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선정된 사람 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탄력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규모에 대해서 풍족하지 않다보니까 제약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심사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이라기보다 아쉬운 현상에 대해서 공유가 되었고 심사위원들도 인정을 하셨지만 이것은 작품의 예술성, 수월성 평가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들을 기계적으로 걸러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 계속 역량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고 풀 차원에서 풍성해지면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작년에 쇼케이스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각 장르별로 합평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관객들을 모셔서 종합적인 비평 기능까지 접목해서 단체들에게 피드백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평에 보시면 아직까지 오페라에 특화된 역량을 보이는 팀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술적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면 혹시 올해의 신작으로 했던 2개 팀에 대한 합평회도 가능한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그 부분은 단체한테 타진을 해 봤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원래 단체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단체들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신 전문가와 관객이 같이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희경 위원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오페라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귀함이 있는데 선정율은 25%가 되지 못하고요. 오페라는 지원규모가 커야하고 물리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고 제한의 범위가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혹은 양질의 좋은 창작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추가 지원제도를 작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건이니까 이견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 위원회 의결안건은 모두 의결이 되었고, 성평등예술지원정책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포함한 5개의 보고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소위원회 결과 보고는 위원님께서 직접 하시겠어요?

○강윤주 위원

- 예, 저는 사실 내용보다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11월에 와서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 제안을 드렸을 때 여러 소위원회 운영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첫 위원회가 열린 게 3월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예술인들, 그 중에서 여성 예술인들은 가사와 육아 때문에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 소위에서 지난달에 열렸던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 여성 예술인들에 대한 간담회도 다시 열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꽤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 7기 위원들이 들어오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위원회가 적어도 1개월 내지는 2개월 정도의 휴지기를 가져야 한다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특정한 소위원회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없을까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은 겁니다.

○강홍구 위원

- 저도 거기에 덧붙이면 성평등 소위도 그렇고요. 우리 김기봉 위원께서 그만 두시기는 했지만 현장소통 소위원회도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다

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쉬지 말고 소통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위의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임기를 연장시켜 놓은 것이니까요.

○강윤주 위원

- 그런데 4월말로 임기가 만료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계획대로면 5월 초에 7기 위원님들이 임명되어 오면 즉시 워크숍을 가동해서 지금 말씀하신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7기 위원회 활동 플랜을 정해야 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성평등 소위나 현장소통 소위뿐만 아니라 저희 소위원회가 모두 귀하고 또 7기 위원회에 맞는 소위원회를 리셋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한 달 정도의 휴지기는 생기는 것이네요?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소위원회 임기제와 무관하게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강윤주 위원

- 저희는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원래 5월 중순쯤에는 회의를 한번 가져야 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소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라 모실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에 회의를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는 대로.

○박종관 위원장

- 그 구성 때까지의 경과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논의 거리인 것 같아요.

○나종영 위원

- 지난 번 현장 소위와 관련된 구성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강윤주 위원은 안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서면회의 때 부결이 된 것 같은데요. 물론 특정 소위가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

로 그런 부분은 규정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특별하게 안 만들어도..... 왜냐 하면 분명히 다음 달부터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특별히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7기 위원들이 구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말씀드리면 연속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부 다 개편하는 것보다는 안건 등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소위원들을 함께 모시는 방법으로 보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윤주 위원

- 예, 저도 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결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여쭙본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시기적으로 없다고 보는데요.

○강윤주 위원

- 제 기억으로는 11월에 발의해서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4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임기가 끝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5월 위원회 때는, 제 기억에 뭔가 처음에는 “이게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것을 정하는데 1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안건으로 올려서 다시 얘기하고, 위원들 위촉에 한 달이 걸렸거든요. 그 절차를 짧게 할 수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5월 정례회의에서 구성되고 기존 위원들은 안고 가면서 새로운 위원 위촉은 6월에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그냥 가는 것에 대해 의결이 끝나면 6월부터는 적어도 회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현재 임기는 4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속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하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효율성 있는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소위원회는 구성원이나 추진 동력이 모두 위원님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가능성을 놓고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을 해서 지금 강윤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형식 때문에 구성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 얘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6기에서 했던 위원회들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그것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했던 소위의 활동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술가치확산 소위도 그렇고 한국예술공론화 소위도 그렇고요. 원래 4월에 최종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되었

잡아요? 지금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나는 5월 12일로 잡아놓고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그 모임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강홍구 위원

- 할 수가 없겠죠.

○이희경 위원

- 규정상으로 못 하는 거지만요.

○박종관 위원장

-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소위원회의 성과를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소위원회 활동보고서가 6기 위원회 임기를 모두 마치고 나서 평가보고서가 없이 그냥 자료집 형태로 묶이는 한이 있더라도 작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부나 사무처에서 대답을 해 주셔서 논의를 매듭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소위원회 운영 규정의 임기를 보면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새로 구성될 때에는 각 소위원회 임기는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2개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기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2개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면 할 수가 있네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지금 현재 저희 임기에 있는 규정입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면 5월에 쉬지 않고 그냥 가도 되는 것이죠?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일단 규정은 그렇지만 지난번 위원회에서 4월까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 잡아요? 그런데 마무리 작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소위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소위원회 부분은 7기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도 궁금해서 여쭙보는데요. 그동안 소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언제 만들어졌죠?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소위원회 활동이 다양했기 때문에 1기 소위원회 외에는 특별히 따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6기 소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만드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죠? 회의자료 등은 전부 남아 있잖아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기획조정부에서 소위의 총괄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마다 조금씩 틀려서 소위별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윤주 위원

- 저희 소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연구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 했던 내용은 굉장히 두껍고 자세하고 가치 있는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봤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의 성과라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소위원회 전체 성과라는 차원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결과로 담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나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즉시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네요. 편차가 있다는 것이 않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백서 형식으로 만들 때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쟁점이나 소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담았는데요. 저도 사실은 기수마다 모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기 때를 제외하고는 백서를 만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정리된 문건은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가동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후에 안 되다보니까 소위 같은 경우에도 개편안을 만들고 논의를 하려고 하면 그 기에서 평가한 소위원회 활동평가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준비 시기는 놓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면 간담회나 자문회의 등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평등 소위는 있지만 다른 소위는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회가 한 기수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된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6기 위원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6기 위원회 활동백서 등을 만드는 것은 이미 수순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보고서 역시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지금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소통 소위원회도 활동

보고서는 공유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별도로 홈페이지까지 유지하고 있어서 어떤 것들이 논의되는지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요. 나머지 소위원회는 편차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즉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강홍구 위원

- 저희 정책 소위도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국회의 낙하산 사업이나 해외페스티벌이나 연극에 대한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들을 포함해서 보고서를 내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애초에 계획에 없던 일이라 소위마다 따져서 하려면 굉장히 방대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 같습니다. “다음 7기 위원들이 부임했을 때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듭니다.

○이희경 위원

- 제 생각에 활동보고서라는 것을 너무 형식적인 포맷을 갖춰서 작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6기가 했던 소위의 성과를 7기가 처음 모일 때 보고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전효관 사무처장

- 그 부분은 사무처에서 7기 위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진단하는 형식 말고 개요, 현황, 성과 등의 초안을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합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사무처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다루었고 회의는 몇 차례를 했다는 정도입니다.

○나종영 위원

- 차기 위원회의 참고자료밖에는 안 되죠.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백서로 만들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성평등 소위원회와 현장소통 소위원회 말고는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요. 최근에 생긴 남북교류 등은 자료가 없는데요. 그런 것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는 아니라도 2개는 남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강홍구 위원

-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 오늘이 마지막 회의이지 않습니까? 제가 6기 위원으로 부임했을 때 “이것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냐 하면 그 전의 위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느낀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사무처 직원의 관점과 위원의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느껴보니까 좀 다릅니다. 그게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도 워크숍 이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게 만들어져

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연속성이나 추진방향이 보일 것 같아요. 장르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고요. 이것은 사무처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위원님들께서 활동에 대한 내용 또는 소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등을 다음 위원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받아서 워크숍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위원 전원 교체가 아니라 6기 위원회의 4인은 다음 7기 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승계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장르 쪽에서는 후임 위원이 전임 위원과 모임을 갖는 형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 형식도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했던 소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어떤 형식으로든 자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위원들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열었으면 합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저는 그것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6기가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국회의 쪽지 예산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다시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 않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넘기는 방식으로 7기가 이어 받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는데요. 국회 쪽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소위에 국민일보 문화부장이 되신 장지영 씨가 계신데 굉장히 흥미를 보이면서 적절한 시기에 기사화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위원회에서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나 대신 위원회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부각하지 않고 홈페이지의 자료 등을 보고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원구성이 되기 바로 직전이나 직후에 그것을 알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려주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창주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1기부터 5기까지 전통문화 분야가 1개 장르에 계신 분이 담당을 하신 것 같아요. 전문문화 분야는 10가지가 있는데요. 국악을 전공한 교수가 오셔서 국악만 강조하다보니까 국악은 완벽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다른 분야는 체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기 위원으로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논의가 다소 넓어진 느낌이 있는데요. 성평등예술지원정책 소위원회 결과 보고라기보다는 6기 소위원회 활동과 7기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기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워크숍에서 오늘 나온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평등예술지원정책 소위원회 개최 결과는 이 정도로 보고를 받고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는 2020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심의 결과 보고입니다.

정대훈 문학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부장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체육기금으로 진행되는 수탁사업입니다.

각 공공도서관을 포함해서 작가들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2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진행되었고 올해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공모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달라진 사항으로는 매년 회계연도가 익년 4월까지로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서관들이 행정적으로 힘들어했고 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주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조정해서 무조건 회계연도 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대비 80%에 이르는 신청 증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총 74개의 도서관이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이 총 12억 원인데 이 예산으로 41개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개 도서관 선정을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28페이지 하단을 보시며 표가 나와 있는데요. 광역, 지역별로 신청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수도권이 41개로 55% 이상이 되는 신청비율인데요. 지역신청비율 보장을 해서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고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심의를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4월 10일 진행되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들로 이 사업과 연관된 유관 단체 또는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사전매칭형은 작가를 매칭해서 신청하는 방식이고 사후채용형은 일단 사업신청을 하지 않고 선정이 되면 작가를 채용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결과인 (4)번을 보시면 총 41건이 선정되었고 8억 5,2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수도권은 16건이고 비수도권이 25건으로 총 61%의 지역선정비율을 기록했고요. 결과 발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지원결정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사항입니다만, 지원사업 결정에 준하는 내용이라서 혹시 의견이 있거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충분한 질의응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주 위원

- 사업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보는 것인데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파견지원사업 같은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그런데 작가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역할을 잘 하고 본인들의 예술 활동에도 도움이 되나요?

○정대훈 문학부장

- 예, 4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가들이 도서관에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강연활동 그리고 도서관에서 주어지는 업무들을 수동적으로 소화했다면 근래에는 도서관과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다른 도서관에서 진행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도서관을 평가모니터링 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뜻있는 도서관들은 경쟁적으로 다른 데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되는 실정입니다.

○나종영 위원

- 인건비가 월 200만 원인데 몇 개월을 하는 거죠?

○정대훈 문학부장

- 통상 7~8개월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1번 하거나 한 달에 2번을 한다면 연간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운영비 자체를 다음에는 올려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 10번 한다고 하면 30만 원 갖고 운영이 되겠어요?

○정대훈 문학부장

- 아마 작년까지는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진행되었고요. 계속해서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조금 증액을 한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을 하고 인원은 몇 명인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단순히 인건비만 지원한다면 생계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는 게 실질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인건비는 월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견사업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사업은 작가가 직접 상주를 하면서 집필공간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 외의 시간에는 집필공간을 여기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에서 집필을 하면서 책도 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책을 발간해서 출판한 분도 있습니다.

○나중영 위원

- 그것은 다른 지원으로 받을 것이고요. 일단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안 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예산에서 줄 것 아닙니까?

○강홍구 위원

- 컸다고 하잖아요?

○나중영 위원

- 그것은 인건비고요.

○박종관 위원장

- 일종의 일자리 사업인 것이잖아요.

○강홍구 위원

- 다른 데는 없는 사업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대로 단순한 과건사업 정도로 보이면 안 되거든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렇고요. 나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된 장치로써 작동할 수 있도록 실제 상주작가들의 처우 문제 등은 늘 같은 수준의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게 체육기금 사업이지만 개선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개선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고를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이것도 접수를 하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는데요.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중요한 보고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술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알 수 없는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예술인들이야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제 속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끊임없이 현장 예술계를 생각하는 지속적인 대안을 내야 하는데 저희가 기금운용을 계속해서 변경해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서면회의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고 의결도 요구한 바 있었습시다만, 대면하여 보고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서 오늘 보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회의자료 35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1-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창작지원과 문화향유 지원에 있어서 총 351억 원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승인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술창작지원은 158억 원으로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별로 간단하게 개요와 추진경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예술창작산실은 9억 원이 증액되어 5월 초에 공모계획을 공고하고 지원심의회 결과발표의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사업 모두가 사업추진을 빨리 해서 현장에 지원금이 닿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대관료지원은 40억 원이 증액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공고가 났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에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지역까지 전달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온라인지원 사업은 공연 생중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황 생중계를 하는 운영업체 선정 등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작업을 신속히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극장운영입니다.

이것은 40억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광역문화재단과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은 10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 96명 지원하던 것을 246명까지 지원해서 150명을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은 19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문화누리카드로 당초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약 10만명을 추가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시·도별 지원인원과 지원금 증액분을 추가 배정과 관련한 협의와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5월 초에는 지원금이 추가교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관람료지원은 기존 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공연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연관람 티켓 구매 시 140만명 대상 정액 할 인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같은 경우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로나19 관련한 1-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강홍구 위원

-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액된 자체는 기재부에서 짚 것인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문체부와 기재부에서 했습니다.

○강홍구 위원

- 공연예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는데요. 앞에 보면 139억과 뒤에 130억 등 벌써 300억이 넘어요. 그러나 시각이나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3차가 되면 이것에 대해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지 지금은 맞지가 않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강홍구 위원님의 지적이 나왔으니 향후 계획까지 말씀을 해 주시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지금 3차 기금운용편성이 있고요. 저희 예술위원회에서도 3차 변경과 관련해서 각 장르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항목별은 누가 정했습니까? 시각예술창작산실 등 항목은 누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전효관 사무처장

- 항목과 예산증액이요?

○최창주 위원

- 예.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뒤에 있는 사업들은 문체부가 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안을 내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초안이 마련되었고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종관 위원장

- 예산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을 2,600억 규모로 볼 때 국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는 530억 정도의 예산 허용 한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보고를 드린 계획이 완료된 사업변경 내역을 제외하고 추가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차 추경이 진행된다면 3차 추경에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기금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관련된 추후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술현장이 너무 어렵고 대안은 더디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금을 사용해서 현장을 부양해야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예산이 서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즉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2021년 문예기금 예산편성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조정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37쪽입니다.

2021년도 문예기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일정과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1월에는 중기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체부 소관과를 거쳐서 기재부에 제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월 17일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문체부 재정담당관실과 기재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사업계획은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을 위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한도의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하얀색은 앞으로 1년 동안 추진이 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사업개선·구조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2021년도 정부 역점 사업들은 지금까지 4차 산업, 한류, 일자리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국가경제나 고용형태가 안 좋다보니까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강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문체부에 1차 제출을 하고 이 부분은 문체부와 협의

를 하게 되면서 버전이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1차로 재정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쪽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국가재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입 받고 있는 관광기금이나 경륜·경정기금, 체육기금 특히 복권기금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문예기금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예기금 수익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 및 조정을 해서 5월 초에 한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5월 초에 문체부의 조정값 통보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기초실장 주제, 실국장 회의 보고 그리고 장관 보고를 해서 5월 말에 문체부의 부처안이 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5월에서 8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기재부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심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말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은 계속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각 위원실을 통해서 요구한다거나 해서 예산을 따게 됩니다.

편성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8쪽입니다.

2021년 주요사업 요구 총괄을 보시면 사업비 지출한도는 2,596억 원으로 저년 2,678억 대비 82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 1인당 지원금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정과제입니다. 이것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향유사업은 증액 반영을 하고 예술창작지원 등은 각 사업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모두 감액 편성이 됩니다.

하지만 예술창작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늘려야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과 같이 한도 외로 시각예술분야 등의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한도 외를 요구하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39쪽입니다.

그래서 예술창작지원은 2020년 455억 원에서 2021년 686억 원으로 231억 정도가 증액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창작과 시각예술창작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연예술 분야에 대해서 사업의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창작산실과 문학광장운영에 18억 원을 편성했고요. 시각예술창작산실 같은 경우에는 전시지원, 공간지원, 비평지원으로 해서 1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미술관장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관련한 기획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인사미술공간을 ART LAB으로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예술창작육성 관련해서는 내년에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이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주년과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대학로 예술극장의 리모

텔링 등 소요가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관 40주년 기념사업 내에는 사회적 기억사업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같은 경우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에 신규 단체를 선정할 수 있는 예산으로 45억 정도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국제예술교류지원 역시 한도 외로 15억 정도의 예산을 더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40쪽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관련해서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술향유와 관련한 실황 생중계 등에 대한 확대 요구를 반영해서 예술과 기술융합지원은 80억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요구를 했습니다.

청년예술가지원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는 500여 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2020년도에는 1,500여 건이 들어와서 1,000건 정도의 신청 수요가 늘어서 이 부분 역시 5억 원을 한도 외로 증액해서 한도 내까지 합쳐서 15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반영되지 못한 기초예술다양성증진,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폐지가 되었던 다원예술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술인력육성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이슈와 관련해서 문체부 특히 공연예술과와 예술국 차원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예술인력육성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데 현장예술인력육성 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도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 대출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한도 외로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은 2020년 대비 5억 원 정도가 감액해서 편성되었고 예술의관광자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통예술진흥재단을 통해서 교부되는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민간 기부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가늠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가 나빠서 기부금이 감소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가 확대 되어서 더 늘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부활성화 같은 것은 경우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건 기부금이 늘어나게 되면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입니다.

예술기록원에 있는 미등록 소장자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부분 역시 계속 신청을 해도 반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억 정도를 더 편성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42쪽입니다.

문화예술향유지원 관련해서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정과제입니다. 1인당 지원금을 연간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6세에서 3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청년구직자들도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

도 외 289억 원을 증액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2020년과 같은 동일 편성입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의 경우 문예회관과 예술단체의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등 신규 유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한도 외로 59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기재부, 문체부,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홍구 위원

- 몇 가지만 여쭙볼게요.

39쪽을 보시면 시각예술창작육성에서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에 10억 원을 지금 요청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시각예술창작산실은 15억이구요. 설사 시각예술창작에서 예산 조정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아르코미술관 예산은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낡아서 개조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쪽 제일 밑에 보면 시각예술에서 우수전시 베니스비엔날레 참가지원에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우수 전시는 참여 작가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전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이것은 국제교류부에서 베니스비엔날레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베니스비엔날레에 우리가 예술감독을 선정해서 한국 작가를 파견하는 사업은 지금 하고 있으니.

○강홍구 위원

- 그 예산인 것이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그 예산과는 별개로요.

○강홍구 위원

-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강홍구 위원

- 이것은 제가 그만 두더라도 밖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지금 말씀 속에 섞여 있는 대로 미술관도 그렇고 시각 쪽의 예산의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강홍구 위원

- 국제교류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주시하고 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특히 미술관 관장을 민간에서 선임하고 말고의 문제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여건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원론적인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강윤주 위원

- 저는 온라인 교육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대적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력해 지는 상황에서 예술인들한테 직접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온라인 교육 강화가 있다는 게 기쁘다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회의를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상회의를 한다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술인에 대한 온라인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의 화상이나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실제로 나주와 서울 간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윤주 위원

- 사실 저는 한 달에 1번 모여서 이렇게 많은 안건을 소화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을 만나되 1번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1번은 화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온라인으로 하면 획기적으로 더 일하는 예술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실제로 한 달에 2번 정도 했어요. 그 패턴을 이어오겠다는 위원장의 의지도 있었거든요. 다만, 코로나19 라고 하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 앞에서 이런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혁신이나 역동성, 준비하고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혁신적인 예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거기에 따라서 예술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구요. 다양한 장치를 놓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안이 나오면 즉각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정확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상 기금적립금을 까먹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말에 1,600억 정도가 쌓여 있다가 올해는 2,200억 정도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최대 530억까지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는 체육기금, 관광기금 쪽에서 1,000억과 500억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광기금 같은 경우 올해 500억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 재정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고 있지만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 주된 방향은 아마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실무적으로도 200억 정도 수준까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융복합이나 4차 산업혁명 등에 치우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짧게 본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기금회계 전반의 위축이 예상됩니다.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정부회계 전체의 위축이 예상되고요.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위축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야 할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것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장이 어렵고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양해야 할 책임이 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2017년 11월에 6기 위원님이 선임되셔서 강홍구 위원님, 김혁수 위원님, 김기봉 위원님, 나종영 위원님, 이승정 위원님, 최창주 위원님 등 6인의 위원님은 오늘까지 회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감도 높았고 할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인 한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중심에서 위원님들이 임명되어 와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 예술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바탕을 잘 마련해 주셨죠. 아직 임기가 끝나신 것은 아닙니다만 6인의 위원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의미를 담아 박수를 보냅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하다가 감사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시다가 분실한 염려가 있어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들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따지고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초창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에서 정년퇴임을 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하지 말고 서양예술종합학교라고 해라.” 그렇게 총장한테 얘기를 했지만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결재를 하면서 “이것을 내가 결재해야 하느냐?” 제가 지난 얘기지만 “눈먼 돈”, “택배회사” 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래도 뭔가 한국인데,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죽하면 제가 그날 밤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잔 것을 책으로 만들었지 만요. 그리고 제가 논문을 “여기가 대한민국인가?”라고 했지만 책에는 “여기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책을 냈습니다. 제도적 구조적인 모순점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후임으로 오더라도 제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상위법. 대한민국 헌법 9조가 대한민국 계승 발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위법인 문예진흥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 구조적 모순점 때문에 오늘까지 버텨왔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교수 정년퇴임을 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으면서 “심각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갑니다. 후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임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이 제도적인 모순점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6기를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언성이 높은 면이 있었어요. 진행을 할 때는 순하게 진행을 했지만 위원이 되니까 큰 소리를 쳤는데요. 진행하다가 잘못된 점, 그리고 발언에 과격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나종영 위원님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나종영 위원

- 이런 자리가 있다고 미리 귀땀을 해 주셨으면 생각을 가다듬었을 텐데요. 세월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포부를 갖고 왔고 어떤 혁신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생각 대로 안 된 것은 여기 모든 위원들이 가슴에 새길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위원님의 부고가 있어서 최창주 대행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기억나는 것은 제가 와서 6개월 정도 혁신TF에서 21개 과제를 갖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용두사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것이고 개선하면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기 때부터 약간 혁신적으로 했다고 하면 6기와 7기가 자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자리는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고요. 기왕에 문화예술위원회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서울과 나주로 나뉘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한 게 섭섭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 실력에 비해서 너무 낮은 단계의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심의건 등은 시스템에 맞기고 예술정책이나 제도 등 보다 향상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의 등은 많이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미 우리가 풀 제도로 들어왔다면 따질 일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심의위원으로 들어온 부분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5~6개월 더 해서 좋았고 앞으로 좋은 자리에서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강홍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강홍구 위원

- 저는 사무처 직원들과 위원장님 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위원이라는 사람은 들어와서 2년을 때우고 나가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들어올 때 포부가 없지는 않았죠. 물론 처음에는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수없이 고사를 하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한창 할 때라 어떻게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형평성, 공정성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e-나라도움에 관한 원성이 워낙 높아서 이 시스템을 바꿨으면 싶었는데요. 블랙리스트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과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해서 기본적인 틀은 갖췄지만 e-나라도움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다면 미술관이나 극장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장을 새로 뽑고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기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서도 딱딱 지원해서 그 분들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문예위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약간 긴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승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이승정 위원

- 저는 촌에서 와서 많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박종관 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께서서는 1기 때 위원을 하셨던 분이 와서 어려운 시기에 잘 이끌어 주셨고요. 저는 운이 좋은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라는 큰 타이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항상 마음에 “우리의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술위원으로서 밖에서 욕을 안 먹도록 잘 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던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김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기봉 위원

- 예, 함께 하신 6기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사무처장님과 사무처 직원분들 그리고 저희들보다 조금 더 일을 하셔야 하는 위원님들을 만나서 반가웠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위기가 지나면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제일 타격을 받는 게 문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술 영역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의 지원 없이 예술창작과 예술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우리 풍토에서 국민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은 여전히 삶에 있어서 필수 영역보다는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 현장의 어려움은 곧 예술위의 위기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술현장과 예술위가 긴밀하게 서로 이 국면을 돌파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예술위에 왔을 때는 앞선 위원님들도 없었고 말은 6기였지만 황폐화된 곳에서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직원들과의 관계도 편안하게 미래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과거 속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과 기억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덧 1기 위원회가 구상했던 그림이 어느 정도 복원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오실 위원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하고 현장에 있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남아 계신 분들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6인의 위원님들을 보내고 헤어질 때가 되니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구축하고 쌓아야 되나 하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감사님도 2년전, 2018년 5월 3일에 임명되어서 임기를 채우셨습니다. 상임감사님도 임기를 마치셔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임감사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김선출 감사

-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늦게 왔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임기 중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 같아서 참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노력과 효과에 대해서 생각했구요. 바로 직전에 기생충 그리고 BTS, 문학 쪽의 소설 등 많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 감수성이라든가 국민의 저력, 문화의 힘으로 선진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문화예술위원회 감사로서 있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3월 초순인가 오영주 본부장 자리에 있었던 같은데요. 그때 이승정 위원님이 면접위원이셨던 것 같고요. 왔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고 현장에서 사과할 때 “왜 사무처장이 거기에 있느냐?”라고 해서 사무처장이 바로 나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에 다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몇 분이 나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위원님들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하루 전에 감사부장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 분은 안타깝게 돌아가셨고요.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 시스템이 조직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가 조금 더 힘을 발휘하려면 더 많은 사업비와 더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대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도 솔직히 이직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진국 국민이 되려면 문화예술의 힘이 커져야 하니까 앞으로 사업비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이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 조직이 역동적이고 우리 직원과 위원님들이 창의적으로 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신바람들이 차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르고 혁신과제들이 실행되고 비전도 선포가 된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더 쇄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했구요. 나머지 기간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그리고 본의 아니게 말씀이나 행동에 대해서 서운하신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노조위원장

-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님께서 친근하게 직원들을 챙겨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기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의욕이 충만하셔서 의욕만큼 직원들의 노고도 비례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남아 주신 위원님들은 앞으로 7기 위원님들이 오시면 시행착오 등을 잘 감안하셔서 새로운 7기 위원회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임기를 마치는 위원님들은 아마도 위원회를 비판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위원회를 편드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회의 편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았어요. 기관이 분해되고 기관이 합부로 분리되거나 합쳐지기도 했구요. 그런데 6기 위원님들이 오셔서 활동한 2년 동안 기관의 위상도 올라가고 자율권도 확장되었고 이른바 아픔도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이 현재로써는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는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부분의 성과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한 가지 논의를 더 해야 합니다.

마지막 논의는 상임감사와 관련된 선임과정을 추진해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논의를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직접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감사님의 임기가 5월 3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감사님에 대한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5인 이상에서 15인 이내로 위원회 위원님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 절차를 진행해서 기획재정부장관한테 3배수로 정도 추천을 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인데요. 통상 지금까지 5인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3인이 참여하시고 2명이 외부 위원인데요. 위원회 구성원을 대변할 수 있는 1인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추천을 해 왔고요. 그리고 문체부 소관 국장이 참석을 해서 총 5인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 3인이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5월경에 15일 간의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의 심의를 거쳐서 6월이나 7월경에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내용은 충분히 아시는 것이고요. 사실 6기 위원회에서 7기 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부에서 과반수 이상이 내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5인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3인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6기에서 7기로 넘어갈 때 남은 위원이 3인입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실 분을 논의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오늘 의결안건으로 만들까 하다가 오늘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논의를 하고 서면으로 의결을 대신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영 위원

-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예술위 비상임위원과 예술위가 추천하는 외부추천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뒤에 가면 노동자 추천 1인과 문체부 예술정책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충이 되는 건가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법령상 과반수 이상이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5인이라고 하면 비상임위원이 3인으로 되는 것이고요. 2인은 위원회에서 선임해야 되는데요. 선임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1인은 위원회 구성원을 대변할 수 있는 1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통상 노동조합에서 1인을 추천하고요. 국장은 관행상 통상 1인이 들어옵니다. 소관 국장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문체부에서 1인을 통상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정 위원

-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법대로 3인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훌륭하신 분은 1인 추천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변호사를 포함하여 복수로 두분을 추천하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7기 위원님들은 대충 언제 오실까요?

○전효관 사무처장

- 장관님 일정으로는 문화부에서 체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3인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승정 위원

- 잠깐만요. 5월에 선임이 아니라 선임 위원들 인사검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상 외로 시간이 걸립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런데 문화부는 아마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워낙 미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는 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님을 추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나종영 위원

-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6기 위원회 위원들로만 가면 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강홍구 위원

- 되도록 빨리 뽑아야죠. 저는 상관이 없는데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기봉 위원

- 감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빨리 하시는 게 좋죠.

○강홍구 위원

- 예, 빨리 해야 합니다. 감사가 빨리 들어와야 합니다.

○이승정 위원

- 인사검증이 2개월은 하거든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다음 주에 바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6월 말이 됩니다.

○이승정 위원

- 속전속결로 했을 때 7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해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어서 아무리 빨리 해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3인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강윤주 위원

-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6기로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쇼크를 받은 풍경이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취임식을 할 때였습니다. 육사 입학식을 연상하게 하는..... 그건 정말 예술위원회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희경 위원

- 너무나 동의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이승정 위원

-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희는 편안하게 했습니다.

○강윤주 위원

- 7기 위원들이 오셨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맞아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아마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변할 겁니다.

○강윤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전효관 사무처장

- 강윤주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외부에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의전과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를 잡아 주는 게, 요즘은 행정에서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데 남아 있는 게 공공기관이라서요.

○이희경 위원

- 처음 취임식을 할 때 저도 문화충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싫은 것은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약력을 소개 하더라고요.

○박종관 위원장

- 이 정도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저희가 3인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올리는 안을 문서로 만들어서 진행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제 직원들은 꽃을 주세요.

(감사패 및 꽃 전달)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이것으로 제 27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회의종료)